

김용익

December, 2016

PREVIEW



[exhibition]
김용익
11.22(화)~12.30(금)
국제갤러리

1970년대 모더니즘부터 1980, 90년대 한국미술사의 큰 흐름과 사회의 굴곡을 경험한 김용익의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최근 2년 동안 제작한 신작 30여 점이 공개되며, 단색화 이후 세대의 미술적 실천과 경향의 일부를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작들은 맑은 질감과 가벼운 색채가 주조를 이루는데, 기존에 선보였던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면 '가벼움'과 '맑음'이란 상징이 두드러진다. 2015년부터 2016년에 제작된 평면작업으로써 <모더니즘의 묵시록> <거짓말의 '어운 속에서'> <알게 - 더 알게 -> (20년이 지난 후) 그리고 <유로피아> 에 이르는 다섯어 가지의 연작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대표작들은 과거의 스케치 혹은 판화작업들을 캔버스로 옮긴 후 이를 재편집 및 재구성한 작품으로, 그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탐구해온 '평행이' 시리즈를 계승하고 있다.

사진 제공_국제갤러리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리영플!
새로운 캐스팅으로 더 강력해진 웃음 폭탄 예고!
글 레리는 아줌마들의 공짜인 대 반란!

한국 **꽃의비밀**

2016.11.29 OPEN
대명문화극장 1층 박스/나그네

[play]
꽃의 비밀
11.29(화)~2.5(월)
대명문화극장

이태리 북서부 시골 마을, 갑자기 남편 없이 생계를 꾸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네 명의 아줌마가 보형금을 타기 위해 각자의 남편으로 변장하여 벌어지는 헤프닝을 다룬 연극이다. 황당한 상황의 연속으로 관객의 폭소를 이끌어내면서도, 여자 혼자 힘으로는 실아가기 힘든 사회 구조가 엿보여 가슴 한 칸이 찡해지는 공감까지 자아낼 예정이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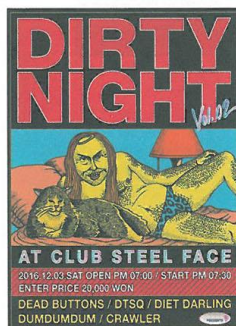
30대 후반 남자와 여자가

당신의 편으로

2016.12

[movie]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12월 개봉
홍지영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10개의 알약을 얻게 된 남자가 30년 전의 자신과 만나 평생 후회하고 있던 과거의 한 사건을 바꾸려 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프랑스 작가 기욤 뫼르의 동명 소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를 바탕으로 원성민 이변 영화는 과거에 사는 남자로 분한 김윤석, 인 2역을 맡은 변요한이 호흡을 맞추어 화제가 되고 있다.



DIRTY NIGHT Vo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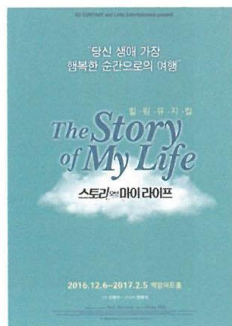
AT CLUB STEEL FACE

2016.12.03 SAT OPEN PM 07:00 / START PM 07:30
ENTER PRICE 20,000 WON

DEAD BUTTONS / DTSQ / DIET DARLING
DUMDUMDUM / CRAWLER

[event]
Dirty Night Vol.2
12.3(토)
클럽 스틸페이스

'로파이 게러지 펑크 쇼(Lo-Fi Garage Punk show)'를 지향하는 '더티 나이트' 공연이 열린다. 지난 10월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이번 공연에서는 데드 버튼즈, 다이어트 달링, 덤덤덤, 크롤러 등, 더티 나이트의 슬로건이던 밴드들이 "어수선한 시국에서 잠시나마 시름을 참고 하이(아)를 느껴보자"는 메시지를 던지며 공연을 함께 꾸밀 예정이다.



당신 생애 가장 행복하고 순간으로의 여행

플워링 뮤지컬

The Story of My Life

스토리-마이라이프

2016.12.4~2017.2.5 매일매일

[musical]
스토리-마이라이프
12.6(화)~2.5(일)
백암아트홀

아버지의 서정을 물려받아 고향을 떠날 생각이 없는 엘빈과, 대학 입학의 앞두고 있는 토마스. 대학 원서를 쓰다 글썽이 막혀버린 토마스는 엘빈에게 고인을 찾아 물어 놓게 된다. 엘빈은 토마스에게 영감을 불러 넣어주고, 토마스는 엘빈의 조언에 마법처럼 글이 써진다. 대학에 입학한 토마스는 점점 세상에 몰들어가고 엘빈과도 멀어지는 가운데, 그가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둘씩 드러난다.